

민주 “판사 사찰 검찰이 했는데 왜 항의는 청와대로 가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위 결론 먼저’ 가다 국민의힘 지도부 ‘국조 촉구’ ... 초선, 청와대 1인 시위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과 추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의 징계문제 등이 일단락된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국정조사는 물 건너 가는 것 같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질 텐데, 국정조사 논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재판에 대한 사안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경화한 국정조사 언급을 피하고, 대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부각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원 대표의 국조 제안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대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주 윤 총장 직무배제뿐 아니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발을 빼고 있다”며 “애초 제안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강

하게 국조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 레임덕인지 모른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거나 갑자기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정권이 윤 총장 직무배제라는 무리수를 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기반을 흔들만한 뭐가 있길래 법무장관을 앞세워 이 난리를 치는가”라며 “법무부와 검찰 모두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사흘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당 지도부 동력에 힘을 보탤다.

여야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판사 사찰은 검찰이 했는데 항의는 청와대로 가셨

다”며 “굳이 항의하시겠다면 판사 사찰 문건이 생산된 서초로 가십시오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시위 현장 방문에 “엄중한 코로나 확산세를 진심으로 걱정하신다면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만류하시기를 바란다”며 “어떻게 방역보다 정쟁이 우선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검찰 비호가 먼저냐”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추 장관에 대해 ‘역겹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연이은 막말 대잔치를 보시는 것이 국민께는 더 역겨울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격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올해 1월 검사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며 “검찰 문제만 나오면 ‘물지마 식 싸씨’에 나서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앞 1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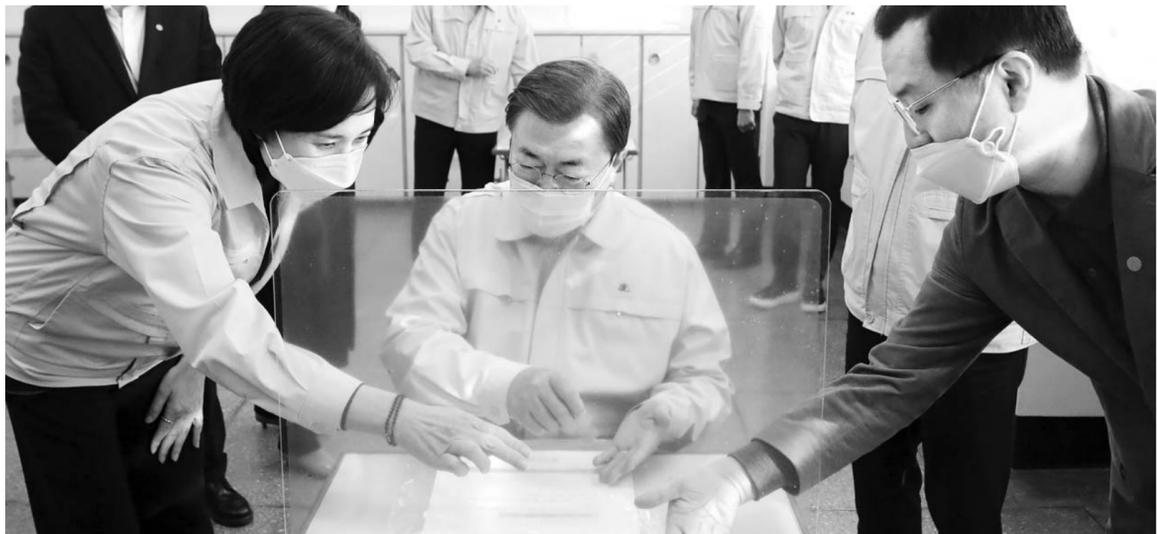
위 중인 초선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된다”며 “대통령은 이 상황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더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추 장관의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일반인이 TV를 틀어 놓고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에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를 포함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권세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짓밟고 있다”며 “이 현실을 보고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아니다”라고 검사들을 두둔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 대통령, 수능 시험장 방역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를 방문, 수험생 자리에 직접 앉아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개 드는 ‘양정철 역할론’

정권 재창출·개혁과제 수행 ‘마지막 비서실장’ 기용론 부각

연말연초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관리론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키우려면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창업 공신인 양 전 원장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문 인사들이 모인 ‘민주주의4.0연구원’의 핵심 의원은 29일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에 무난한 ‘관리형’을 앉히기에는 아직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이 남았다”면서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양 전 원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계 한편에서는 임기말 청와대를 소리 없이 무난하게 이끌 수 있는 인사가 적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운근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 인물

이다.

청와대 차기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다른 의원은 “노 살장이 당장 그만두기 어려워 내년 초쯤 교체될 것으로 들었다”면서 “개각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후임자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 이유”라고 전했다.

총선 압승 직후 여의도를 떠나 다시 야인이 된 양 전 원장은 계속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이날엔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잠룡들 몰물에서 접촉하며 단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머드급 친문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이 출범하자 “지금은 문쳐야 할 때”라며 대권 세력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發 지각 예산 처리 우려

민주 “국채 불가피” ... 국민의힘 “뉴딜 50% 깎자” 대립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의견대립을 빚고 있어 ‘늦장 예산 처리’를 되풀이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 뒤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제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맞선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정국이 냉각된 점도 예산안 처리에 악재로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 표명과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위가 공천함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또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30일 전체회의를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선으로 공언한 상태다.

여야 갈등 고조로 예산안이 6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남은 기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되, 안 되면 부담이 있다”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분리해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이용빈 ‘역사의 죄인 전두환, 엄정 판결로 단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29일 “23년만에 다시 법정에서 선 전두환의 재판을 하루 앞둔 29일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역사의 죄인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목격 증언을 했던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조비오 신부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을 고소했다”면서 “지난 2018년, 23년 만에 전두환을 ‘5.18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서 서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인륜적 범죄자인 전두환은 자신이 마

치 피해자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의도로 썼던 회고록이 결코 자신의 역사적,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 결과가 됐다”며 “이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도 전두환의 수사·재판 기록,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KoROAD 도로교통공단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른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www.noin.or.kr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채권신고공고 (2차)

본 회사는 2020년 10월 23일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2021년 01월 05일까지 그 채권 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주식회사 심산주택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44, 2층 (용봉동)
청산인 김길태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박길승(540915-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경일로 22 (송정동)
· 피상속인 망 박길승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노단1489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30일
· 상속인: 박덕림(420708-XXXXXX)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길 58-4
· 신고기간: 2020. 11. 30. ~ 2021. 2. 8.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박덕림의 주소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들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의거 아래에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개장할 묘지
 - 소재지: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713-3번지
 - 묘지규모: 1기
- 개장방법: 사유재산권 보존
- 개장방법: 유언장에는 언급되지 않음의 개장
· 유언장에는 공고기장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 개장 후 안락장소 및 기간
· 안락장소: 여수시 영락공원
· 안락기간: 안치 후 10년
- 신고 및 열람처
· 연락처: 010-2344-0088 김봉철
여수시 선원길 67 우미노스빌 202동 606호
-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망기간 내에 제묘의 발견되는 등 중요 사항이 발생하거나 심의 관련한 문묘는 이 공고로 적용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공고인 김봉철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987
병역법위반
· 피고인: 정준영
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년 11월 25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산행안내

12월1일(화)
▲광주 가고파트레킹 12월1일(화) 논산 탐정호 · 출렁다리 · 소풍길 탐방,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월드킴복문 뽕등기너문 07:30, 한국병원앞 07:40, 교원공제앞 07:50, 문예회관후문 시내버스터미널 08:00 * 다음카페 광주 가고파트레킹 ☎ 010 6294 2678, 010 3821 9090

12월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2월5일(토) 여수개도 천재봉 · 봉황산, 봉선동태데마트앞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2월6일(일)
▲광주KJ산악회 12월6일(일) 포항 호미반도 해파랑길 15코스, 염주체육관 06:00, 동야병원앞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날레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특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